

칼빈주의 바로 알기 16
칼빈의 원조 어거스틴의 신정 정치/국가 교회 탄압
종교개혁자들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무력 탄압

골2:8

우리는 지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지난번 강해는 종교 개혁자들의 만행의 흑역사,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다고 루터의 경우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책들(토라와 탈무드 등)을 금서로 정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라고 하였다. 루터의 반유대주의는 결국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의 근거가 되었다, 칼빈의 경우 제네바에서 무력 통치를 하며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잘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일들을 자행하였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안 된다.

그 당시는 국가마다 국교가 있었다. 국민들은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회와 그 교회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을 자유가 없었다.

(* 오토 베버의 책 <칼빈의 교회관>에 나와 있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17세기 유럽의 모든 국가에는 신정정치라는 통치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것은 4세기경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되면서 존재한 '기독교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개념의 핵심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공인한 신앙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정치적으로 이런 국가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라고 불리며 이런 교회는 국가 교회(State Church)라고 불린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바로 이런 국가 교회의 신정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이다. 즉 그 당시 칼빈과 개혁자들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신약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해 구약의 신권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시대에 편견 없이 신약성경을 읽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교회는 그와 같은 신정정치 국가체제가 아니며 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만든 이런 철학서를 우리는 이 자유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설물같이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성경의 단순함을 버리고 교묘한 언변과 추론으로 가득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같은 책에 성경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기에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의 부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칼빈의 신정 정치 국가 교회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누구인가? 즉 칼빈주의의 원조는 누구인가?

(* 위키 백과로 들어가면 이에 대한 기사가 정확히 나와 있다: [Augustinian Calvinism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Augustinian_Calvinism)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inian_Calvinism

소제목: 칼빈과 어거스틴의 TULIP

칼빈의 글: 나는 어거스틴과 전적으로 똑같다.

(* 위키 백과: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

Augustine is so wholly(at one) within me, that if I wished to write a confession of my faith, I could do so with all fullness and satisfaction to myself out of his writings. (*) <Calvin's Calvinism, A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987), Henry Cole.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p. 38.

위키백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자기를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어거스틴 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따라서 기독교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칼빈주의자로 간주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 그 결과 칼빈주의는 특별히 어거스틴주의라 불려왔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어거스틴의 5대 강령

어거스틴은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 18년 동안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변형들을 가르쳤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숙명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을 가르쳤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10년 정도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다. 마니교에서는 신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하고(택자) 정죄받을 자들(비택자)을 선택한다.

(*)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 교부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예정은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였다. 어거스틴 전에 50명의 초기 크리스천 저자들이 인간의 자유 의지와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50명 전원은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 의지를 지지하였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412년 이전에 무려 26년 동안 이러한 숙명론을 대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가르쳤다. (*) 그런데 그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틀어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랐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만다(즉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야 믿을 수 있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는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어거스틴이 자기의 신념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의 논쟁 때문이었다.

(*) 주후 200년경의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 혹은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 세례를 반박하였다. 주후 400년까지도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유아 세례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가 영원한 정죄를 수반하는 아담의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가르침이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요소는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의 어디로 떨어지는지, 수탉들이 싸울 때 목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책 [섭리](Providence)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유아세례 대상인 아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주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신다거나 혹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쳤다. 유아 세례를 통해 이 아이들은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막아서 그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천주교 내에서도 논쟁이 있고 학자들은 이런 개념이 플라톤주의, 스토아 학파, 마니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 그 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유아에서 어른으로 확장하였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 칼빈주의의 전적인 타락 즉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영지주의에 물든 마니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마니교는 낙태나 유산된 아이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니교 신자들의 신은 믿음과 은혜를 먼저 사람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람의 죽어 있는 의지를 부활시켜야만 하였다. 어거스틴은 전적인 타락의 원인을 아담의 죄라고 바꾸었지만 여전히 스토아 학파, 마니교, 신플라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입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지는 죽어 있다는 가르침을 유지하였다. [즉 그는 전적으로 속명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칼빈은 그대로 복사하였다.]

(*) 결론: 어거스틴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을 발명했으므로 어거스틴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여전히 적합하다. 어거스틴의 5대 강령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 신학 내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위키 백과 말고도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 B.B 워필드: 칼빈이 가르친 교리 시스템은 어거스틴주의 바로 그것이며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by Calvin is just the Augustinianism common to the whole body of the Reformers

존 파이퍼: 루터와 칼빈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스펠전: 칼빈 자신은 주로 어거스틴의 글들에서 칼 빈주의를 유도해냈다.

그 이유: 종교 개혁자들은 다 로마 카톨릭 출신,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회의 4개 박사 중 하나, 성인,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https://www.discerningtheworld.com/2013/01/29/calvin-augustine-roman-catholic-connection/>

결론: 칼빈주의의 원조는 어거스틴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자체를 다 어거스틴에게서 빌려 왔다.

그러면 루터와 칼빈은 왜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어거스틴이 그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리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354-430년)은 4세기에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서구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제롬),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스(암브로시우스) 등과 함께 서방(카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며, 아프리카의 북부 도시 히포에서 주교로 활동하였으므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린다. 그는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이 저서들을 통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즉 모든 것을 예정한 다) 등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하여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권통치 국가 혹은 그런 국가의 교회에 종속된 인간 즉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로봇 형태의 인간 개념을 만들어냈다.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irresistible) 즉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하고(구원받아야 하고) 그 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받아야 구원자를 믿을 수 있다. 그래야 그는 로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로봇 조절 프로그램 혹은 리모컨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오직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이 베푸는 성사(聖事) 성사(sacrament)란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 의식을 뜻하며 여기에는 유아 세례, 견진, 고해(고백), 성체(미사), 신품, 혼인, 종부 성사가 있다. 이 중에서 성체 성사는 미사 때 제사장(신부)에 의해 축성되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뜻하며 이를 영성체(領聖體)라고 한다. 성체 성사는 일곱 성사 중 가장 큰 성사로 다른 성사들은 성체 성사를 위한 준비이고 영성체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 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Christianity)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Churchianity)라고 부른다.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교회'라고 하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마22:21에서 "그러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지한다,

어거스틴은 신약시대에 신정정치를 구현하려는 국가 교회가 세상에 확립되는 시대에 태어나 마니교, 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 철학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잘 드러난다.

(*)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린 <하나님의 도시> - 원제목은 '이교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도시'임 - 라는 '역사 사회 철학서'는 예수님의 복음에다 키케로, 마니,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가시적인 교회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주의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무천년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유럽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이다. <네이버 지식 백과>, 참고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왕국 시대(계20:1-6)라고 말한다. 그들이 믿는 천 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육체적 통치가 아닌 영적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 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 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묘사된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물론 그것은 신정정치 국가 교회 체제인 카톨릭 교회였다.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 한 이유이다.

(*) 어거스틴이 살던 북아프리카에는 주후 313-355년에 '순교자들의 교회'를 이끈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던 도나투스스를 따르는 도나티스트들이 있었다. 도나티스트들은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 구성된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들의 교회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교회로 변성했다.

도나티스트들은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고 세속적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으며 교회 일에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약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4세기경의 카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배도하였으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국가 교회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이로써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와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로 분열되었고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황제가 도나티스트 편이 아니라 카톨릭 편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국가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도나티스트 교회를 제압하였다.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즉 "그들을 억지로(강제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 교회를 국가 교회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어거스틴은 강압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 즉 그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적인 처벌’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회심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중세 천주교회의 십자군 원정과 종교 재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에서 나타난 그의 성경 해석은 중세 천주교회와 그 이후 개혁자들의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뒤 루터와 칼빈의 시대까지 약 11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교리에 따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였다.

루터와 칼빈 역시 어거스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므로 자기들의 주장이나 믿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 제압하고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 보고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중세 천주교, 칼빈의 제네바 통치, 루터교에서 드러나는 국가 교회 신정 정치 시스템의 오류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시대는 인간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시기이다.

국가는 교회를 통해 다스려야 하므로 모든 나라가 다 국가 교회를 유지하였다.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등

그러다보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멸되었다는 교리가 국가 통치에 가장 좋은 교리가 되었다.

이것을 세워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제네바에 적용하여 몸소 실행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네이버 지식 백과 (*) 신권 정치, 신정 정치,

(*) 신정정치에서는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心情)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정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 형태를 보인다. 신정정치의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빈(John Calvin)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고, 현대의 신정정치로는 혁명 후의 이란 정부를 들 수 있다. 칼빈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칼빈의 제네바 통치가 신정정치라는 것과 그의 신정정치 사상이 어거스틴을 통해 구약시대의 신정정치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칼빈의 제네바 통치는 우리가 현시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중동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력 통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잘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지식 백과, 두산 백과>라는 세속 사전이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탄생시킨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신정정치와 같은 것으로 분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천주교회 같은 교회교의 속박이나 목사나 교회의 독재에 대항하며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거스틴의 다른 사상: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Augustine of Hippo’ 항목에서 그대로 발췌함

1. 마리아 숭배: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렀다.
2. 교회: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혹은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자유 의지: 그는 원죄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으며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도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4. 종말론: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평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주장하였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히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다.
5. 연옥: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다.

어거스틴 총정리

1. 신정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정치를 구현하는 국가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다.
2.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3.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이어 받는다.
4. 인간의 자유 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5.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이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어거스틴주의, 그의 속명론

결론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하지만 자기들 생각에 오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처참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해야 한다.

존 휘컴(Dr. John Whitcomb)의 말: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영적 혹은 교리적 오류로 인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 오류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회의 분리와 징계라는 신약성경의 교리를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신정정치 국가로 오인하게 되었는가?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결합,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시스템이 생긴 배경, 무려 1500년간 성경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탄압한 것, 성경 박멸 등이 이루어진 역사를 살펴보고 싶다. 이것들을 알아야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문제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칼빈주의식 성경 해석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